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 가족건강성

방경숙<sup>1</sup> · 채선미<sup>2</sup> · 김지영<sup>3</sup> · 강현주<sup>4</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간호과학연구소<sup>1</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간호과학연구소<sup>2</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sup>3</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sup>4</sup>

##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in Late School Aged Children

Bang, Kyung-Sook<sup>1</sup> · Chae, Sun-Mi<sup>2</sup> · Kim, Ji-Young<sup>3</sup> · Kang, Hyun-Ju<sup>4</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2</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3</sup>Master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4</sup>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family is a primary environment and has pivotal rol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 of family strengths to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late school aged childre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55 children at 5th and 6th grades in four provinces of South Korea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ANOVA were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compare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and academic performance. Family strengths were also affected by the presence of both parents.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Conclusion:** The family relations of school aged children are important for child's body image and self-esteem. We recommend that psycho-emotional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for both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 low family strengths to improve body image and self-esteem.

**Key Words:** Body image, Self-esteem, Family, Childre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후기는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신체적 변화에 관심이 커지는 때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확장되고 또래와의 관계가 발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된다. 특히, 신체적 변화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적절한 신체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신체상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Hong, 2006), 발달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Lee, 2004). 즉, 건강한 자아발달 및 성격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신체상, 자존감, 가족, 아동

**Corresponding author:** Chae, Sun-Mi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16, Fax: +82-2-740-4103, E-mail: schae@snu.ac.kr

- 본 연구는 Bang et al (2012)의 연구(doi: 10.1111/j.1365-2648.2012.05963.x)와 대상자가 같으나 사용된 변수와 목적이 다르며 본문 내용이 완전히 다름을 밝힙니다.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또한 학령기 후기는 인간의 자아정체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며 성취와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청소년 예비시기이다. 아동의 자존감은 개인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에 의해 형성되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도 형성되는데(Shaffer, 2002), 이는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 성인이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에 형성된 자존감은 인생의 전 단계에서 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상과 자존감 형성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우선적으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습득되고 타인과의 접촉에 의한 경험과 지각에 의해서 형성된다. 특히, 아동의 초기 사회 정서적 경험은 가족맥락에서 일어나므로 가족관계는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 및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Koh, 2010).

신체상 형성과 가족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신체상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고(Ata, Ludden, & Laily, 2007) 가족 구성원들은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Haworth-Hoppner, 2000). 즉, 신체상 저하와 왜곡은 가족의 비판적인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존감과 가족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형성은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방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Koh, 2010; Park, Choi, Park, & Kim, 2002; Yang & Yoo, 2003). Kang (2003)의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는데, 부모자녀 갈등이 적을수록 아동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정서적 가정환경과 자존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족이 아동의 신체상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각각의 하위체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전체 체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전체 가족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령기 후기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발달을 돕기 위한 가족중심의 중재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본다.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분석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의 4개 지역에서 임의로 1개교씩을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각 학년 2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에 응한 대상자는 495명이었으나 불충분한 자료 50부를 제외하고 455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

Harter (1985)가 개발한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Park (1995)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가지 영역(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general self-worth)으로 구성되어 있는데(Harter, 1985),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자존감만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별 문항 수는 6문항씩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신체상 .75, 자존감 .80, 전체 문항은 .86이었다.

####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Eo와 Yoo (1995)가 개발한 34문항의 가족

건강성 척도 중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유대 9문항, 의사소통 7 문항, 문제해결력 5문항, 가치공유 4문항의 25문항으로 Lee (2009)가 수정한 5점 척도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Lee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 4. 자료수집

기관 IRB의 심의를 거친 후 임의표출한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과 보건교사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와 학생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부모와 학생이 각각 동의서에서 명하도록 하였다.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아동에게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자료를 회수하였다. 설문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참여자에게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후 SPSS/WIN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신체상, 자존감,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5학년 45.5%, 6학년 54.5%였으며 성별은 남아 49%, 여아 51%로 유사하였다. 아버지는 대졸이 56.3%, 어머니는 고졸 이하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가 44.1%, 둘째가 44.6%였다. 대상자가 자가보고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정도가 75.5%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성적도 중간정도가 56.8%로 가장 많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과 자존감, 가족건강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는 양친부모가 모두

제시지 않은 경우 가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t=3.000, p=.003$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대도시보다 신체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28, p=.020$ ). 경제수준과 학교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신체상, 자존감, 가족건강성이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Fifth	207 (45.5)
	Sixth	248 (54.5)
Gender	Male	223 (49.0)
	Female	232 (51.0)
Religion <sup>†</sup>	Yes	264 (59.1)
	No	183 (40.9)
Parents <sup>†</sup>	Both parents	435 (96.0)
	Single parent or none	18 (4.0)
Educational level of father <sup>†</sup>	≤ High school	141 (32.7)
	College	243 (56.3)
	Graduate school	48 (11.1)
Educational level of mother <sup>†</sup>	≤ High school	195 (44.9)
	College	194 (44.6)
	Graduate school	46 (10.6)
Socioeconomic status <sup>†</sup>	High	72 (15.9)
	Middle	342 (75.5)
	Low	39 (8.6)
Siblings	Yes	403 (88.6)
	No	52 (11.4)
Birth order <sup>†</sup>	First	177 (44.1)
	Second	179 (44.6)
	≥ Third	45 (11.2)
School performance <sup>†</sup>	High	158 (34.8)
	Average	258 (56.8)
	Low	38 (8.4)
Living area	Big city	193 (42.4)
	Small city	262 (57.6)

<sup>†</sup>Missing not included.

#### 3.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논 의

본 연구는 신체적인 성장 및 변화와 더불어 자아정체성 탐색이 시작되는 청소년 예비시기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Table 2.**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Body -image	t or F	P (Scheffé)	Self -esteem	t or F	P (Scheffé)	Family -strength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15.77±3.86	0.209	.834	18.20±3.88	0.939	.348	97.67±7.21	0.072	.943
	Female	15.69±4.25			17.84±4.43			97.54±21.15		
Parents	Both parents	15.77±4.06	0.789	.431	18.05±4.13	1.047	.296	98.20±19.00	3.000	.003
	Single parent or none	15.00±4.10			17.00±5.21			84.38±22.61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High school	15.59±4.19	0.299	.741	17.87±4.38	0.381	.684	95.63±18.75	1.902	.151
	College	15.90±4.07			18.19±4.03			99.26±18.75		
	Graduate school	15.96±3.42			18.38±3.94			100.14±21.65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15.83±4.12	1.301	.273	18.06±4.02	0.069	.933	98.30±17.48	0.192	.825
	College	15.99±4.21			18.14±4.33			97.88±20.30		
	Graduate school	14.91±3.15			17.89±4.13			99.82±20.88		
Socioeconomic status	High	16.44±3.87	13.536	<.001	18.83±4.11	14.359	<.001	104.42±16.25	17.928	<.001
	Middle	15.94±3.91		a,b>c	18.21±3.93		a, b>c	97.96±18.64		a>b>c
	Low	12.64±4.46			14.77±4.99			82.36±22.33		
Siblings	Yes	15.73±4.04	0.000	>.999	18.06±4.11	0.593	.553	97.07±19.22	-1.627	.104
	No	15.73±4.21			17.69±4.65			101.69±19.54		
Birth order	First	16.08±3.69	1.381	.253	18.45±3.92	1.670	.189	98.48±18.85	0.934	.394
	Second	15.53±4.27			17.69±4.23			95.78±19.46		
	≥ Third	15.13±4.41			17.76±4.20			96.11±19.88		
School performance	High	16.75±3.78	11.930	<.001	19.01±3.99	9.373	<.001	102.21±16.97	13.807	<.001
	Average	15.43±4.00		a>b>c	17.69±4.09		a>b, c	96.74±19.06		a>b>c
	Low	13.50±4.48			16.16±4.59			84.84±23.27		
Living area	Big city	15.22±4.10	-2.328	.020	17.78±4.39	-1.050	.294	97.19±20.57	-0.394	.694
	Small city	16.11±3.99			18.19±4.00			97.91±18.34		

**Table 3.**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Variables	Body image	Self-esteem
	r (p)	r (p)
Self-esteem	.676 (< .001)	
Family strength	.377 (< .001)	.453 (< .001)

과 자존감을 파악하고 이들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주요 발달과업인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존감의 확립과 가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은 양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질수록 긍정적인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사회의 아동들은 외모와 신체에 대한 왜곡된 기준으로 인해 부정적인 또는 건강하지 못한 신체상을 발달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이는 아동의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아동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신체상 정립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달과업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한 성인을 육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형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일차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의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은 가족건강성과 양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고, 가족원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유하는 가치체계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도 아동의 신체상과 가족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의 신체상과 가족의 관계를 분석한 Jung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상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청소년기 아동 뿐 아니라 청년기 초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Oh, 1999)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동의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도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Kwon & Oh, 2004; Eo & Yoo, 1997; Yun & Lee, 2007; Seo & Kim, 2009; Kim & Seo, 2010)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존감 형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임을 알 수 있다. Bang 등(2012)의 연구에서도 비만아동의 자존감에 대해 부모의 놀림여부가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존감 형성을 위해 가족건강성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중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경제수준과 학교성적이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거나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이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낮고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 아동의 신체상이나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Kwon & Oh, 2004; Felman, Hancock, Rielly, Minners, & Cairns, 2000). 그리고 학교성적은 학령기 초기 아동에 비해 학업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이라 사료된다. 성적이 좋을수록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Oh, 2003; Dalgas-Pelish, 2006; Seo & Kim, 2009; Kim & Seo, 2010).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빈곤계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빈곤계층의 경우 빈곤의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양육행동이 증가될 수 있으며(Lee, 2004) 이는 아동의 신체상이나 자존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계층의 아동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족한 지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지지와 자원제공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건강한 신체상과 자존감 발달을 증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성적 이외에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 대상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족중심의 아동 신체상과 자존감 증진 중재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족건강성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및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의 건전한 자아의식 발달을 위해 가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수준과 학교성적은 이들 세 가지 변수와의 유의성이 파악되었으므로 특히 빈곤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지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 성적 이외에도 학령기 후기 아동이 본인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였을 뿐 또래친구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달에 가족 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래와의 관계를 포함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Ata, R. N., Ludden, A. B., & Laily, M. M. (2007). The effects of gender and family, friend and media influences on eating behaviors and body imag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1024-1037.
- Bang, K. S., Chae, S. M., Hyun, M. S., Nam, H. K., Kim, J. S., & Park, K. H.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teasing on relations of body mass index to depression and self-perception of physical appearance and global self-worth in childr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doi: 10.1111/j.1365-2648.2012.05963.x.
- Dalgas-Pelish, P. (2006). Effects of a self-esteem intervention program on school-age children. *Pediatric Nursing, 32*(4), 341-348.
-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Eo, E. J., & Yoo, Y. J. (1997).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269-285.
- Felman, M. A., Hancock, C. L., Rielly, N., Minners, P., & Cairns, C. (2000).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with or at risk for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2), 247-261.
- Harter, S. (1985). *Manual for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Press.
- Haworth-Hoepfner, S. (2000). The critical shapes of body image: The role of culture and family in the production of eating disord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212-227.
- Hong, K. H. (2006).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MI and body image on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2), 348-357.
- Jung, J. E., Kim, J. M. (2010). The effects of narcissism, perfectionism and family resilience on adolescents' body imag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3), 1-17.
- Kang, H. K. (2003). Self-esteem of the schooler of families in pover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9*(3), 301-308.
- Kim, M. Y., & Seo, J. Y. (2010). Body image,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of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Child Health, 14*(1), 24-34.
- Koh, M. K. (2010).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3), 195-202.
- Kwon, D. H., & Oh, Y. J. (2004).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115-127.
- Lee, K. H. (2004). The effect of poverty and parental behavior for predicting high level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Studies, 25*(5), 1-9.
- Lee, S. J.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influencing variables on perceptions of parenthood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243-266.
- Lee, Y. M. (2004). The effect of children's body shape perception and body image perception on their die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43-153.
- Oh, H. K. (2003). A stud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5*(2), 278-286.
- Oh, J. O.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of famil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2), 153-172.
- Park, Y. Y. (1995).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ark, Y. Y., Choi, Y. H., Park, I. J., & Kim, H. E.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self-esteem -emphasizing on the analysis based upon children's sex-.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43-60.
- Seo, H. J., & Kim, J. O. (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Shaffer, D. R. (2002).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CA: Brooks/Cole.
- Yang, S. M., & Yoo, Y. J. (2003). Effects of self-esteem, healthiness of famil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9), 121-134.
- Yun, Y. J., & Lee, M. S. (2007). The influence of family health on the self-esteem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2), 105-122.